최척전 내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崔陟(최척), 字(자)는 伯昇(백승)이니 南原(남원) 사람이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아버지 淑(숙)과 더불어 府(부)의 서문 밖 萬福寺(만복寺) 동쪽에 살았다. 어려서부터 기개가 있고 교유하기를 좋아하며, 약속을 중히 여기고 옹졸한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았다. 아버지가 일찍이 그를 훈계하여 이르기를, "네가 배우지 않아 무뢰하니 필경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물며 지금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 주현에서 바야흐로 무사를 징집하는데, 사냥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며 늙은 아비에게 근심을 끼치지 마라. 머리를 굽혀 글을 받아 유자의 업에 종사하면,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군대에 가는 것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에 鄭上舍(정 상사)라는 자가 있는데, 나의 젊은 시절 친구이다. 학문에 힘쓰고 글을 잘하니 초학자를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니, 네가 가서 그를 스승으로 삼아라." 하였다.

陟(척)이 즉시 책을 끼고 문에 이르러 업을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자 문장이 날로 풍부해져서 마치 강하가 터져 흐르는 듯하니, 향인들이 그 총명함에 감복하였다. 매번 학문을 강론할 때마다 문득 땋은 머리의 소녀가 있었는데 나이가 열일곱 혹은 열여덟쯤 되어 보였다. 눈썹과 눈이 그림 같고 머리카락이 칠처럼 검었는데, 창벽 사이에 숨어 엎드려 몰래 듣곤 하였다. 하루는 상사가 바야흐로 식사 중이라 나오지 않자 陟(척)이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창틈으로 작은 종이 하나가 던져졌다. 그것을 집어 보니 곧 '摽有梅(표유매)'의 마지막 장을 쓴 것이었다. 陟(척)의 마음과 혼이 날아갈 듯하여 감정을 진정할 수 없었다.

[A] 陟(척)은 밤을 타서 몰래 그녀를 안고 싶었으나 즉시 후회하고, 金介鉉(김개현)의 일로 스스로 경계하며 깊이 생각하였다. 의리와 욕심이 교전하다가 문득 상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그 시를 소매 속에 감추고 수업을 마치고 물러났다. 문밖에 한 푸른 옷을 입은 아이가 陟(척)을 뒤따라와서 말하기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였다. 陟(척)이 이미 시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던 터라 푸른 옷의 아이의 말을 듣고 매우 괴이하게 여겨 먼저 불러오게 하여 그 집으로 인도하여 자세히 물었다. 대답하기를, "아이는 李(이) 낭자의 여종 春生(춘생)입니다. 낭자께서 아이를 시켜 郎君(낭군)에게 화답하는 시를 청하여 오게 하셨습니다." 하였다. 陟(척)이 의아해하며 묻기를, "너는 정씨 집 아이가 아니냐? 어찌하여 이 낭자라고 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주인집은 본래 京城(경성) 崇禮門(숭례문) 밖 靑坡里(청파리)에 있는데, 주인어른 李景新(이경신)이 일찍 돌아가시고 과부 어머니 沈氏(심씨)가 홀로 처녀와 함께 삽니다. 처녀의 이름은 玉英(옥영)이니 시를 던진 자가 이분입니다. 작년에 난리를 피하여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나주 會津(회진)에 머물다가 가을에 회진에서 남원으로 왔습니다." 하였다.

"과부 어머니가 경성에서 와서 정씨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한 처녀가 있어 나이와 용모가 모두 묘하니, 진실로 불초한 제가 상사에게 구한다면 반드시 발 빠른 자가 먼저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들은 화족으로서 천 리 길을 떠도는 부평초 같으니 그 뜻이 반드시 부유함을 구할 것인데, 우리 집은 본래 가난하니 그들이 반드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陟(척)이 반복하여 아뢰기를, "우선 가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성취 여부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다음 날 아버지가 가서 물으니 鄭(정)이 말하기를, "나에게 고종사촌 누이가 있는데, 경성에서 난리를 피해 궁색하게 나에게 귀순하였네. 그 딸의 자태와 행실이 규방에서 빼어나니 내가 바야흐로 혼처를 구하여 가문을 빛내고자 하네. 진실로 자네 아들이 재주가 뛰어나 사위 삼고 싶은 소망에 어긋나지 않음을 알지만, 걱정되는 바는 가난할 뿐이네. 내가 마땅히 누이와 상의하여 다시 알리겠네." 하였다. 淑(숙)이 돌아와 그 아들에게 말하니, 陟(척)이 며칠 동안 번민하며 괴롭게 그 가을을 기다렸다.

상사가 들어가 沈氏(심씨)에게 말하니 심씨 또한 어렵게 여기며 말하기를, "내가 온 집안이 유리걸식하여 외롭고 위태로워 의탁할 곳이 없는데, 오직 딸 하나가 있으니 부유한 사람에게 시집보내고자 합니다. 가난한 집은 비록 어질더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날 밤 玉英(옥영)이 그 어머니에게 나아가 입으로 말을 하려 하나 머뭇거리며 내뱉지 못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품은 바가 있으면 나에게 숨기지 마라." 하였다. 玉英(옥영)이 부끄러워하며 주저하다가 강권한 후에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사위를 고르심에 반드시 부유함을 구하고자 하시니 그 정은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집이 부유하고 사위가 어질다면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만, 만약 혹 집은 넉넉하나 사위가 심히 어질지 못하다면 그 가업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남편에게 주겠지만, 비록 곡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崔生(최생)을 보니 날마다 아저씨에게 와서 배우는데, 충후하고 성실하며 신용이 있어 결코 경박한 탕아가 아닙니다. 이분을 배필로 얻는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하물며 가난한 것은 선비의 상사요, 의롭지 않게 부유한 것은 제가 심히 원하지 않으니 청컨대 결단하여 시집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처녀가 마땅히 스스로 말할 바가 아니나 ㉠ 기틀이 매우 중하니 어찌

처녀의 수줍은 근심 때문에 혐의하겠습니까. 잠자코 말하지 않다가 마침내 용렬한 자에게 시집가서 일생을 망치게 되면, 이미 깨진 시루는 다시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물든 실은 다시 희게 할 수 없으니, 눈물을 흘린들 어찌 미치며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제 몸은 타인과 달라 집에 엄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도적이 이웃 지경에 있으니, 진실로 충신한 사람이 아니면 어찌 모녀의 몸을 의탁하겠습니까? 차라리 안씨의 청혼을 따르고 서씨 누이의 자천을 피하지 않을지언정, 어찌 깊은 방에 숨어 다만 남의 입만 바라고 서로 잊혀지는 땅에 두겠습니까?"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마지못해 다음 날 정씨에게 고하기를, "내가 밤에 다시 생각해보니 최랑이 비록 가난하나 내가 그 사람을 보니 본래 가문이 있는 선비입니다. 빈부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힘으로 이루기 어려우니,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혼인을 도모하느니 차라리 이 사람을 사위로 얻고 싶습니다." 하였다. 鄭(정)이 말하기를, "아우가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권하여 이루겠네. 崔(최)가 비록 가난한 선비이나 그 사람이 옥 같으니, 京洛(경락)에서 구하더라도 이런 무리는 드물 것이네. 만약 뜻을 이루고 업을 성취한다면 끝내 연못 속의 물건은 아닐 것이네." 하고, 즉시 중매를 보내 ㉡ 약속하여 9월 보름으로 가례를 행하기로 하니, 陟(척)이 크게 기뻐하며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세며 기다렸다.

얼마 안 되어 전 참봉 邊士貞(변사정)이 의병을 일으켜 영남으로 가는데, 陟(척)이 활쏘기와 말 타는 재주가 있으므로 드디어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陟(척)이 진중에 있으면서 약혼한 날을 근심하여 병이 되었고, 그 약혼한 날에 이르러 장을 올려 휴가를 청하니 의병장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어느 때인데 감히 혼인하여 모이기를 구하느냐? 임금이 고난을 겪어 풀숲에 계시니 신하된 자는 창을 베고 누워도 겨를이 없거늘, 너는 아직 장가들 나이도 아니니 도적을 멸하고 혼인을 도모해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다."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玉英(옥영) 또한 최생이 군대에서 돌아오지 않고 약속한 날을 헛되이 보내자, 음식을 줄이고 잠을 자지 못하며 날로 근심하고 번민하였다. 이웃에 梁(양)씨 성을 가진 자가 있는데 집이 매우 부유하였다. 그 옥영의 어질고 밝음과 최생이 오지 않음을 듣고 틈을 타서 청혼하며, 몰래 재물로 정씨의 아내를 꾀어 날마다 거듭 미혹하여 말하기를, "최생은 가난하여 아침에 저녁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려워 항상 남에게 빌리니 장차 어찌 가솔을 길러 근심이 없음을 보존하겠는가? 하물며 군대에서 돌아오지 않으니 생사를 기약하기 어렵다. 그러나 양씨는 넉넉하고 부유하여 재물이 많다고 일컬어지며, 그 아들의 어짐이 최생보다 못하지 않다." 하였다. 부부가 말을 합하여 입을 모아 그를 추천하였다. 沈氏(심씨)의 마음이 자못 흔들려 10월 길일을 택하여 약속하니 실로 깨뜨릴 수 없었다.

[B]
玉英(옥영)이 밤에 어머니를 찾아가 말하기를, "崔(최)는 의병의 진영에 따르고 있으니 가고 머무는 것이 주장에게 달려 있어 일부러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기다리지 않고 가볍게 스스로 약속을 깨뜨린다면 불의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저의 뜻을 빼앗으신다면 죽음뿐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하늘이시니 사람과 도모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어찌 이토록 미혹되느냐? 마땅히 가장의 처분을 따를 것이니 아이가 어찌 귀의할 곳을 알겠느냐?" 하였다. 밤 깊은 꿈결에 홀연히 헐떡이며 물 흐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 깨어서 그 딸을 어루만지니 그곳에 없었다. 놀라 일어나 찾으니 옥영이 창벽 아래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어 엎어져 있었다. 손발이 모두 차고 목구멍 사이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점차 가늘어지며 끊어지려 하였다. 놀라 부르며 매듭을 풀고 춘생을 발로 차서 불을 켜 오게 하여 안고 통곡하였다. 한 국자의 물을 입에 넣으니 잠시 후에 깨어났다. 주인집 또한 놀라 움직여 와서 구하니, 그 후로는 절대로 양씨 집안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崔淑(최숙)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 사유를 말하였다. 陟(척)이 바야흐로 병이 위독했는데 이를 듣고 놀라고 감격하여 병세가 더욱 위태롭게 변하니, 의병장이 이를 듣고 즉시 영을 내려 보내주었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고질병이 홀연히 나아 드디어 仲冬(중동) 초길일에 정 상사의 집에서 ㉢ 혼례를 올리니, 두 아름다움이 서로 합하여 기쁨을 알 만하였다. 陟(척)이 아내와 심씨를 싣고 그 집으로 돌아오니, 문에 들어서자 종들이 기뻐하고 당에 오르자 친척들이 하례하였다. 경사가 온 집안에 넘치고 명예가 사방 이웃에 흡족하였다.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베틀을 안으며 몸소 우물과 절구질에 나아가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섬기니 정성과 효도가 지극하였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거느림에 정과 예가 모두 걸맞으니, 원근에서 듣는 자들이 모두 梁鴻(양홍)의 아내나 鮑宣(포선)의 부인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으리라 여겼다. 陟(척)이 장가든 후에 구하는 바가 뜻대로 되어 가업이 조금 넉넉해졌으나, 항상 후사가 늦어지는 것을 근심하여 매달 초하루에 부부가 萬福寺(만복사)에 가서 기도하였다. 내년 甲午(갑오) 원월에 또 가서 기도하였는데, 그날 밤 丈六金身(장륙금신)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만복사의 부처이다. 내가 너의 정성에 가상히 여겨 기이한 사내아이를 주노니, 태어나면 반드시 이상한 관상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기한에 이르러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 한 붉은 점이 있으니 드디어 이름을 '夢釋(몽석)'이라 하였다.

陟(척)은 퉁소를 잘 불어 매번 달 밝은 저녁과 꽃 피는 아침에 마주 앉아 불었는데, 때마침 늦은 봄 맑은 밤에 장차 미풍이 문득 움직이고 밝은 달이 빛을 발하며 날리는 꽃이 옷에 떨어지

고 그윽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술단지를 열어 술을 따르고 가득 부어 마시며 책상에 기대어 세 번 연주하니 여음이 묘묘하였다. 玉英(옥영)이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첩은 본래 부녀자가 시 읊는 것을 싫어하였으나 이 정경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고 드디어 한 절구를 읊기를, “왕자가 퉁소 부니 달이 낮게 지려 하는데 / 푸른 하늘 바다 같고 이슬은 쓸쓸하네 / 모름지기 함께 청란을 타고 가리니 / 봉래섬 연하에 길 잃지 않으리.” 하였다. 陟(척)이 처음에 그 문장 솜씨가 이와 같은 줄 알지 못하다가 시를 듣고 크게 놀라 한 번 부르고 세 번 감탄하며 즉시 한 절구로 화답하여 이르기를, “요대 아득하고 새벽 구름 붉은데 / 난소 다 불어도 곡조는 끝나지 않았네 / 남은 소리 허공에 가득하고 산에 달이 지는데 / 뜰의 꽃 그림자 향기로운 바람에 움직이네.” 하였다. 읊기를 마치자 옥영의 기쁜 마음이 다하지 않았는데 흥이 다하자 슬픔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하기를, “인간사에 사고가 많고 좋은 일에는 마가 끼니, 백 년 안에 이별과 만남이 일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홀홀하여 감정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陟(척)이 소매를 휘둘러 눈물을 닦고 위로하여 풀이하며 말하기를, “굽히고 펴고 차고 비는 것은 천도의 상리요, 길흉과 회린은 인사의 당연함입니다. 설혹 불행하더라도 마땅히 운수에 맡겨야지 어찌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질없이 스스로 그러하지 마십시오. 근심이 없는데 슬퍼하는 것은 고인이 경계한 바요, ‘길한 것을 말하고 흉한 것을 말하지 마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모름지기 근심하고 번민하여 즐거운 마음을 막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로부터 사랑이 더욱 ㉣ 깊어져 부부가 스스로 知音(지음)이라 일컬으며 일찍이 하루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

丁酉(정유) 8월에 이르러 도적이 남원을 함락하니 사람들이 모두 도망쳐 숨었다. 陟(척)의 온 집안이 智異山(지리산) 燕谷(연곡)으로 피난하였다. 陟(척)이 옥영에게 남복을 입게 하여 광원 중에 뒤섞이게 하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산에 들어온 지 여러 날에 양식이 다하여 굶주리게 되자 陟(척)이 장정 두세 명과 함께 산을 나가 먹을 것을 구하고 또한 적의 형세를 살폈다. 길을 가다 求禮(구례)에 이르러 갑자기 적병을 만나 바위 숲에 몸을 숨겨 피하였다. 이날 적이 연곡에 들어와 산과 골짜기에 가득하여 약탈하기를 남김없이 하였는데, 陟(척)은 길이 막혀 나아가거나 물러나지 못하였다. 사흘이 지나 적이 물러간 후 다시 연곡으로 들어가니 다만 쌓인 시체가 가득 널려 있고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루었다. 수풀 사이에서 은은히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陟(척)이 찾아가 보니 노약자 대여섯 명이 온몸에 상처를 입고 陟(척)을 보고 울며 말하기를, “적병이 산에 들어온 지 사흘 동안 재물을 빼앗고 백성을 베었으며 자녀들을 다 몰아갔고, 어제 이미 蟾江(섬강)으로 물러나 진을 쳤습니다. 일가를 찾고자 하거든 물가에서 물어보십시오.” 하였다. 陟(척)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땅을 치며 피를 토하고 즉시 섬강으로 달려갔다. 몇 리를 못 가서 난시 중에 신음 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살아있는 듯 없는 듯한데, 피가 얼굴을 덮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의복을 살피니 春生(춘생)이 입었던 것과 매우 비슷하였다. 큰 소리로 부르기를, “네가 춘생이 아니냐?” 하니, 춘생이 눈을 뜨고 陟(척)을 보며 목구멍으로 말을 하기를, “낭군님, 낭군님! 주인집은 적병에게 사로잡혀 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석(몽석)을 업고 빨리 달리지 못하니 적이 병사를 끌고 와서 베어 죽이고 갔습니다. 제가 땅에 쓰러져 즉시 죽었다가 반나절 만에 깨어났으나, 등에 업힌 아이의 생사와 거취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말을 마치고 기운이 다하여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陟(척)이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민망하여 기절하여 쓰러졌다. 이미 어찌할 수 없게 되자 일어나 섬강을 향하니, 언덕 위에 노약자 수십 명이 서로 모여 울고 있었다. 가서 물으니 이르기를, “우리들이 산중에 숨었다가 적에게 몰려 적선에 이르렀는데, 장정들을 뽑아 함께 싣고 늙고 병든 자들은 칼날에 쓰러지게 하여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陟(척)이 크게 통곡하며 홀로 온전할 생각이 없어 자결하려 하다가 사람들의 구함을 받아 그만두었다. 강머리를 밟으며 갈 곳이 없어 겨우 돌아오는 길에 닿으니 사흘 밤낮이었고, 그 살던 집은 무너진 담장과 깨진 기와에 남은 불길이 꺼지지 않았으며 쌓인 해골이 언덕을 이루어 발 붙일 곳이 없었다.

드디어 金橋(금교) 곁에서 쉬는데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분주히 다녀 힘이 다해 혼절하여 일어나지 못하였다. 홀연히 명나라 장수가 수십 기를 거느리고 성안에서 나와 금교 아래에서 말을 씻겼다. 陟(척)이 의병진에 있을 때 천병과 응접하고 수작한 지 오래되어 화어를 조금 이해하였다. 인하여 온 집안이 패망한 것과 한 몸 의탁할 곳 없음을 호소하고, 함께 천조에 들어가 장차 머물 계획을 세우고자 하였다. 명나라 장수가 듣고 슬퍼하며 또한 그 뜻을 가련히 여겨 말하기를, “나는 吳(오) 총병의 千總(천총) 余有文(여유문)이다. 집은 절강 요흥부에 있는데 비록 가난하나 족히 스스로 먹고살 만하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뜻에 맞게 노니는 것이니,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네가 이미 가솔에 대한 미련이 없으니 어찌 반드시 한 지방을 지키며 구차하게 머물 곳이 없겠느냐?” 하고 드디어 말 한 마리에 태워 진영으로 돌아갔다. 陟(척)은 용모가 준수하고 계획이 깊으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하고 문자에 밝았다. 여공이 그를 사랑하여 상을 같이 하여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총병이 철수하여 돌아가매 陟(척)을 전사한 군사의 명부에 올려 관문을 지나 요흥에 이르러 살게 되었다.

처음에 陟(척)의 가족이 사로잡혀 강에 이르렀는데, 적이 陟(척)의 아버지와 고모가 늙고 병들었으므로 심하게 감시하지 않으니 두 사람이 적이 물러가기를 엿보아 몰래 대중으로 도망쳤다. 적이 가매 촌락에서 구걸하며 전전하다 연곡사에 들어갔

는데, 승방에서 손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沈氏(심씨)가 울며 崔淑(최숙)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아이 목소리가 우리 아이와 이토록 같습니까?” 하였다. 淑(숙)이 급히 문을 밀고 보니 과연 夢釋(몽석)이었다. 드디어 품 안에 두고 한참을 어루만지며 울고는 인하여 묻기를, “이 아이를 어디서 얻어 왔습니까?” 하니, 승려 중에 慧正(혜정)이라는 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길가 시체 중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가련하여 거두어 와서 그 부모를 기다렸는데, 이제 과연 이분들이니 어찌 하늘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淑(숙)이 이미 손자를 얻으매 심씨와 번갈아 업고 돌아와 노복들을 모으고 가사를 경영하였다.

이때 玉英(옥영)은 왜노 頓于(돈우)에게 사로잡혔다. 돈우는 늙은 왜인으로 본래 살생을 하지 않고 자비롭게 염불하며 장사를 업으로 삼아 배 부리는 법을 익혔다. 왜장 行長(행장)이 선주로 삼아 데려왔다. 돈우는 옥영의 기민함을 사랑하여 오직 달아날까 두려워하며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어 그 마음을 위로하였다. 옥영이 물에 뛰어들어 죽고자 하여 재삼 배에서 나갔으나 문득 깨닫는 바가 있었다. 어느 날 밤 丈六金佛(장륙금신불)이 옥영의 꿈에 나타나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만복사 부처이다. ㉤ 삼가 죽지 마라, 후에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옥영이 깨어나 그 꿈을 생각하니 만에 하나의 기대를 품지 않을 수 없어 드디어 억지로 먹으며 죽지 않았다. 돈우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는데 아내는 늙고 딸은 어려 다른 아들이 없었으므로 옥영을 집에 머물게 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옥영이 속여 말하기를, “나는 본래 모습이 어린 남자이고 뼈가 약하고 병이 많습니다. 본국에서 정장의 부역을 감당하지 못하여 다만 바느질과 밥 짓는 것을 업으로 삼았을 뿐 다른 일은 진실로 할 줄 모릅니다.” 하였다. 돈우가 더욱 그를 불쌍히 여겨 이름을 ‘沙干(사간)’이라 하고, 매번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 火長(화장)으로 삼아 배 안에 두어 민절 사이를 왕래하였다.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④ 비현실적인 초현실적 배경을 설정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⑤ 꿈이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인물에게 닥칠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최척은 의병 활동 중에 혼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관에게 휴가를 요청하였다.
② 옥영은 최척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유한 양씨 집안의 청혼을 거절하였다.
③ 춘생은 적병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으나 몽석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④ 최숙과 심씨는 연곡사에서 승려 혜정이 거두어 기르던 몽석을 극적으로 만났다.
⑤ 옥영은 일본으로 끌려간 뒤 남장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생계를 유지했다.

03

윗글에 나타난 '옥영'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감정을 억제하며 부모의 결정에 순응하고 있다.
②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사회적 금기를 깨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③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대응한다.
④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현재의 시련을 숙명적인 업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⑤ 신분적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적 권위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최척전』은 17세기 초반 정유재란이라는 역사적 실재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를 다룬 소설이다. 이 작품은 전란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불교적 초월성과 인간의 굳은 의지를 결합하여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주인공들이 겪는 고난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주체적 선택은 당대 소설의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① 최척이 의병에 가담하여 혼례가 미뤄지는 설정은 개인의 삶이 국가적 위기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겠군.
② 옥영이 일본인 돈우에게 자신을 남자로 속이는 장면은 전란의 위기 속에서 발휘된 주체적 생존 전략이겠군.
③ 최숙과 심씨가 연곡사에서 몽석을 찾는 과정은 전란으로 파괴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희망을 암시하겠군.
④ 옥영이 꿈속 부처의 계시를 듣고 자결을 포기한 것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고난 극복의 동력이 됨을 의미하겠군.
⑤ 최척이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떠나는 결정은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려는 의지겠군.

05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나 기회
② ㉡: 장래의 일을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기로 함
③ ㉢: 혼인을 치르는 예식으로, 인연의 결실을 의미함
④ ㉣: 두 사람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더욱 두터워짐
⑤ ㉤: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행동하는 모양

0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외부적 행동으로 치환하여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② [B]는 인물의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강한 태도를 보여준다.
③ [A]와 달리 [B]는 주변 인물의 조력을 통해 주인공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④ [B]와 달리 [A]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과거 내력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⑤ [A]와 [B] 모두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이 종교적 기적에 의해 반전되고 있다.

07

옥영이 어머니 심씨를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대방의 과거 실수를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부유함보다 인품이 가업 보존에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어머니를 설득한다.
③ 자신의 불행이 어머니의 탓임을 암시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④ 고사성어를 인용하여 자신의 선택이 가문의 전통에 부합함을 증명하고 있다.
⑤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

08

윗글에서 '퉁소(소)'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물 간의 신분적 격차를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매개체이다.
② 과거의 즐거웠던 추억을 환기하여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하는 도구이다.
③ 인물들의 예술적 재능을 확인하고 서로를 '지음'으로 인식하게 한다.
④ 다가올 전란의 비극을 예견하여 인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소재이다.
⑤ 인물의 내면적 욕망을 표출하여 도덕적 규범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치이다.

09

윗글의 서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반부는 인물들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혼인이 성사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② 중반부는 전란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 가족이 흩어지는 비극적 상황을 제시한다.
③ 후반부는 흩어진 가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모습을 병렬적으로 보여준다.
④ 인물들이 겪는 위기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지만, 해결은 필연적 인과에 의해 이루어진다.
⑤ 공간적 배경이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일본으로 확장되면서 서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10

지문 후반부 '옥영'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족에 대한 그리움 → 포로 생활의 절망 → 부처의 계시를 통한 희망
② 전쟁에 대한 공포 → 남편에 대한 원망 → 새로운 삶에 대한 개척 의지
③ 죽음에 대한 공포 → 생존에 대한 욕구 → 타국 생활에 대한 호기심
④ 신분에 대한 자부심 → 몰락에 따른 수치심 →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
⑤ 평화로운 삶의 만족 → 이별에 대한 예감 → 운명에 순응하는 체념

11

옥영이 일본인 '돈우'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과장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상대방의 종교적 신념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다.
③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기 상황을 모면한다.
④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해주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12

최척이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쟁으로 인해 온 가족을 잃고 고향에서 더 이상 의탁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② 의병 활동을 통해 명나라 군사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이다.
③ 여유문이 최척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④ 고국에 남아 있는 것보다 명나라에서 새로운 관직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⑤ 여유문으로부터 요흥에서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13

윗글의 '최숙'과 '심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최숙은 자녀의 혼인보다 가문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② 심씨는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꺾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인물이다.
③ 두 사람은 전란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불신하며 각자의 생존만을 도모하고 있다.
④ 두 사람은 몽석을 찾는 과정에서 종교적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중시한다.
⑤ 두 사람은 최척과 옥영의 재회를 확신하며 끝까지 고향 집을 지키는 인물들이다.

14

윗글의 사건 전개 과정에서 '만복사 부처'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최척 부부에게 아들 '몽석'의 탄생을 예고하여 가족의 기쁨을 선사한다.
② 옥영의 꿈에 나타나 미래의 희망을 암시함으로써 자결을 막는 계기가 된다.
③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도 인물들이 보호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④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⑤ 비극적 현실 속에서 인물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정신적 지주가 된다.

1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의 사회적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란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타국으로 끌려가는 민중의 고통이 극심했다.
② 가난하더라도 학문적 재능과 인품을 갖춘 선비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존재했다.
③ 여성의 정절과 의리를 중시하면서도,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④ 명나라 군대와의 연합 작전을 통해 외적을 물리치는 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⑤ 불교적 신앙이 민중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고난 극복의 심리적 기제가 되었다.

최척전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0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⑤ 꿈이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인물에게 닥칠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출제의도]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서술 특징인 꿈의 기능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⑤ 지문 후반부에서 옥영의 꿈에 '장륙금신불'이 나타나 죽지 말라고 당부하며 "후에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현재의 고난(포로 생활) 이후에 일어날 긍정적 사건(가족 상봉 등)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인물 간의 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건의 전체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보다는 인물의 의지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②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적 논평)이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인물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주된 특징은 아니다.

③ 공간의 이동(남원→지리산→중국/일본)은 나타나지만, 심리 변화를 정밀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사건의 전개와 이별의 상황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다.

④ 만복사 부처가 꿈에 나타나는 비현실적 요소가 있으나, 이는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기보다는 인물에게 삶의 희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02 내용 일치 불일치

정답: ③ 춘생은 적병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으나 몽석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사건 전개 과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③ 지문 후반부 춘생의 발언을 보면, "아석(몽석)을 업고 빨리 달리지 못하니 적이 병사를 끌고 와서 베어 죽이고 갔다"고 하며, 아이의 생사와 거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몽석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오답 풀이]

① 최척은 의병진에서 약혼 날짜에 맞춰 휴가를 청했으나 의병장에게 거절당했다.

② 옥영은 양씨 집안과의 혼담이 강제로 진행되자 자결을 시도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④ 최숙과 심씨는 피난 중 연곡사에서 혜정이 보호하던 몽석을 발견하고 재회한다.

⑤ 옥영은 일본인 돈우에게 사로잡힌 뒤 자신을 남자라고 속여 '사간'이라는 이름으로 배를 탔다.

03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정답: ②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사회적 금기를 깨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출제의도]

여주인공 옥영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옥영은 당시 사회적 관습을 깨고 최척에게 먼저 시를 던져 마음을 전했으며,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설득하는 주체적인 면모를 보인다. 또한 전란 중에도 남장을 하거나 자결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

[오답 풀이]

① 옥영은 부모의 결정(양씨와의 혼인)에 순응하지 않고 자결을 시도하며 저항했다.

③ 최척과의 혼인을 위해 정 상사나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는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④ 시련을 숙명으로 여기기보다는 최척과의 재회를 꿈꾸며 적극적으로 생존을 도모한다.

⑤ 만복사 부처의 꿈을 희망으로 삼기는 하지만, 그것은 생존의 계기일 뿐 신분 극복의 수단은 아니다.

04 보기를 참고한 종합적 감상

정답: ⑤ 최척이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떠나는 결정은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려는 의지겠군.

[출제의도]

보기에 제시된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의 세부 장면을 비판적으로 감상한다.

[정답 풀이]

⑤ 지문에서 최척이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가는 것은 "온 집안이 패망한 것과 한 몸 의탁할 곳 없음을 호소"하며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는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린 능동적 개척이라기보다, 가족을 잃은 절망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의병 참전이라는 국가적 사건이 혼례라는 개인적 대사와 충돌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② 남장은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한 옥영의 지혜롭고 주체적인 선택이다.

③ 몽석과의 재회는 흩어진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서사적 희망을 제공한다.

④ 절망적인 포로 생활에서 부처의 계시는 옥영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심리적 지지대가 된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행동하는 모양

[출제의도]

한자어 및 문맥적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

[정답 풀이]

⑤ ㉤ '삼가'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라는 뜻의 부사이다. 문맥상 부처가 옥영에게 죽지 말라고 당부하며 조심스럽고 간곡하게 권고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몰래 행동하는 모양'은 '남몰래'나 '몰래'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 '기틀'은 사건이 전개되는 중요한 고비나 결정적 순간을 의미한다.

② ㉡ '약속'은 최척과 옥영이 혼인을 하기로 정한 계약을 뜻한다.

③ ㉢ '혼례'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두 사람의 결합을 상징한다.

④ ㉣ '깊어져'는 부부간의 정(情)이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됨을 의미한다.

06 표현상 특징과 효과

정답: ② [B]는 인물의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강한 태도를 보여준다.

[출제의도]

두 장면의 서사적 기능과 인물의 태도를 비교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② [B]에서 옥영은 최척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결을 시도한다. 이는 부모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과 의지를 지키려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최척의 내면 갈등(의리와 욕심의 교전)은 상사의 등장으로 중단될 뿐, 행동으로 치환되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③ [B]에서 옥영이 구조되기는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위기 모면일 뿐 전란과 이별이라는 근본적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④ [A]에서 춘생의 말을 통해 옥영의 내력이 제시되지만, 이는 대화를 통한 정보 전달이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는 아니다.

⑤ [B]에서 옥영의 소생은 인간적인 구호 조치에 의한 것이며, 종교적 기적은 지문 후반부 꿈 장면에서 나타난다.

07 인물의 말하기 방식 분석

정답: ② 부유함보다 인품이 가업 보존에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어머니를 설득한다.

[출제의도]

인물의 대화 속에 담긴 논리적 구조와 설득 전략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옥영은 "집은 넉넉하나 사위가 심히 어질지 못하다면 그 가업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편다. 즉, 경제적 조건보다 인물의 됨됨이(충후, 성실)가 장기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데 더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어머니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 한다.

[오답 풀이]

① 옥영은 어머니의 실수를 언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걱정(부유함 추구)을 '유감'이라 표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③ 자신의 불행을 예견하기는 하지만, 이를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④ 비유적 표현(깨진 시루, 물든 실)을 사용하기는 하나, 가문의 전통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용도는 아니다.

⑤ 도적이 이웃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만, 이는 과장이 아니라 당시의 실제적인 위기 상황을 근거로 든 것이다.

08 소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③ 인물들의 예술적 재능을 확인하고 서로를 '지음'으로 인식하게 한다.

[출제의도]

작품 속 핵심 소재인 '퉁소'가 인물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③ 최척이 퉁소를 불고 옥영이 이에 화답하는 시를 읊는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문학적·예술적 깊이를 확인한다. 서술자는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지음(知音)'이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최척과 옥영은 이미 혼인한 상태이며, 퉁소가 신분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퉁소를 부는 시점은 전란 전의 평화로운 때이므로, 고통을 잊게 하는 도구라는 설명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

④ 퉁소 소리 자체에 예견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옥영이 그 분위기에서 느낀 슬픔이 복선이 될 뿐이다.

⑤ 퉁소 연주와 시 읊기는 부부간의 고상한 풍류로 묘사되며, 도덕적 규범 일탈과는 거리가 멀다.

09 전개 구조 및 반전

정답: ④ 인물들이 겪는 위기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지만, 해결은 필연적 인과에 의해 이루어진다.

[출제의도]

소설 전체의 구성 원리와 전개 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④ 이 작품에서 전란이라는 위기는 역사적 실재에 기반한 필연적 배경이지만, 몽석을 연곡사에서 찾는 과정이나 옥영이 꿈을 통해 생존 의지를 다지는 과정 등은 고전 소설 특유의 우연성과 초월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해결이 필연적 인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최척과 옥영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혼인 성사의 핵심 동력이었다.

② 정유재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가족 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③ 최척(중국), 옥영(일본), 최숙/몽석(조선)의 상황이 교차되며 제시된다.

⑤ 남원에서 시작된 배경이 요흥(중국)과 나고야(일본) 등으로 넓어지는 광활한 배경을 갖는다.

10 화자/인물의 정서 변화

정답: ① 가족에 대한 그리움 → 포로 생활의 절망 → 부처의 계시를 통한 희망

[출제의도]

지문 후반부 옥영의 심리적 궤적을 정확히 추적한다.

[정답 풀이]

① 옥영은 전란으로 가족과 헤어진 뒤 왜군에게 잡혀 죽으려 할 정도로 절망한다(물에 뛰어들려 함). 그러나 꿈속에서 부처의 계시("후에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이다")를 들은 후, 만에 하나의 기대를 품고 억지로 먹으며 삶을 이어가게 된다.

[오답 풀이]

② 최척에 대한 원망은 지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최척을 깊이 신뢰한다.

③ 타국 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옥영의 상황(포로)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서이다.

④ 옥영은 신분적 자부심보다 개인의 인품과 사랑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⑤ 옥영은 운명에 순응하기보다 남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한다.

11 인물의 대응 방식 분석

정답: ③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기 상황을 모면한다.

[출제의도]

적국에서 생존하기 위한 옥영의 지혜로운 대응 방식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③ 옥영은 돈우에게 자신을 "본래 모습이 어린 남자"라고 속이고, 몸이 약해 거친 일은 못 하지만 바느질과 요리는 할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여성임을 숨기고 비교적 안전한 '화장'의 역할을 얻어낸다.

[오답 풀이]

① 몸이 약하다는 말은 하지만, 이는 동정심 유발보다는 남성으로서의 부역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② 돈우가 염불하는 자비로운 사람인 것은 맞으나, 옥영이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④ 돈우를 위해 장사를 돕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뢰 형성을 위한 능동적 목적은 아니다.

⑤ 능력을 입증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일을 못 한다고 제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12 세부 장면의 의미 분석

정답: ④ 고국에 남아 있는 것보다 명나라에서 새로운 관직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출제의도]

인물의 행위 동기를 지문의 구체적 근거를 통해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④ 최척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관직을 얻기 위한 야망 때문이 아니라, "온 집안이 패망"하고 "한 몸 의탁할 곳 없음"을 느껴 내린 절망적인 선택이다. 지문 어디에도 관직 획득의 유리함을 따지는 대목은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족의 죽음과 집의 파괴는 최척이 고향을 떠나는 근본적 원인이다.

② 최척이 화어(중국어)를 조금 이해했기에 여유문과 소통이 가능했다.

③ 여유문은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기고 그를 말에 태워 데려가며 친밀하게 대했다.

⑤ 여유문은 자신의 집이 비록 가난하나 "족히 스스로 먹고살 만하다"며 최척을 안심시켰다.

13 인물 간의 관계 및 비교

정답: ② 심씨는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꺾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인물이다.

[출제의도]

조연 인물들의 성격 변화와 역할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심씨는 처음에 가난한 최척을 사위로 맞는 것을 반대하며 부유한 집안을 원했으나, 옥영의 간곡한 설득과 논리를 들은 후 "밤에 다시 생각해보니... 자기는 가문 있는 선비"라며 생각을 바꾸고 혼인을 허락한다.

[오답 풀이]

① 최숙은 아들의 간청을 듣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 상사에게 혼담을 넣으러 가는 등 아들의 뜻을 존중한다.

③ 두 사람은 피난길에 함께 다니며 몽석을 거두고 가사를 돌보는 등 긴밀히 협력한다.

④ 몽석을 찾은 것은 혜정 스님의 자비와 우연(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며, 심씨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⑤ 두 사람은 전란을 피해 지리산으로 피난을 갔으며, 최척과 옥영의 생사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몽석을 키우며 가문을 지킨다.

14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 ④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출제의도]

작품의 초월적 장치인 '부처'의 서사적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④ 부처는 옥영의 꿈에 나타나 "후에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상적인 희망을 줄 뿐, 최척이나 몽석이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만복사 기도를 통해 몽석의 탄생과 비범한 관상을 예언했다.

② 절망에 빠진 옥영에게 생존의 근거를 마련해주어 죽음을 막았다.

③ 초월적 존재의 개입은 인물들의 고난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임을 암시하는 장치이다.

⑤ 옥영이 타국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부처의 계시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다.

15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 ④ 명나라 군대와의 연합 작전을 통해 외적을 물리치는 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출제의도]

작품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지문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④ 지문에서 최척이 의병에 가담하고 명나라 장수 여유문을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만, 이들이 연합 작전을 펼쳐 외적을 물리치는 구체적인 국가적 대응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남원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도망치는 등 패배와 고난의 상황이 주를 이룬다.

[오답 풀이]

① 최척 가족의 이산과 옥영의 일본행, 최척의 중국행이 이를 증명한다.

② 정 상사가 최척의 재능을 보고 사위로 추천하거나, 옥영이 인품을 중시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③ 옥영이 부모를 설득하거나 남장을 하고 자결을 시도하는 등 주체적인 모습이 돋보인다.

⑤ 만복사 기도나 꿈속 부처의 등장이 민중의 불교 신앙을 반영한다.